

‘차별 없는 경지’, 詩로 노래한 문장가

역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 연천 홍석주

연천 홍석주(淵泉 洪奭周, 1774~1842)은 주자학에 밝았던 조선 후기의 명망 있는 권문세가이다. 그의 아버지는 홍인모(洪仁模)와 어머니 영수할 서씨(徐壽閣 徐氏)는 모두 문장에 뛰어났다. 그의 아우 홍길주(洪吉周 1786~1841)는 사마천에 견줄 만한 문장가라 칭송된 인물이었다고 홍현주 또한 시문에 능한 문장가로, 정조의 둘째 딸인 숙선옹주와 혼인하여 영명위(永明尉)로 봉해졌으니 그의 집안에 문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원래 그는 노론, 낙론 계열인 김창협과 김원행의 학문을 이었으며 연경을 다녀온 후 청초(淸初)의 고증학자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 학문에 깊이 매료된다.

정주학(程朱學)에 기초를 둔 유학자였던 그는 노장사상에도 관심을 두어 <정노(訂老)>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의 천재성은 이미 약관의 나이도 되기 전에 대학자로서의 기틀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력과 학문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승려들과 과도 폭 넓게 교류한 흔적은 그의 시문을 통해 드러나는데 아우 홍현주와 교류했던 초의 스님뿐 아니라 도갑사 승려인 견우(見留)와 대둔사(현 대흥사) 승려 응신(應身)과 지현(指軒), 그리고 승제(勝濟) 스님 등과도 깊이 교류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도갑사와 대둔사, 송광사 같은 사찰을 유람하면서 남긴 수편의 시문이 전해진다. 그러므로 그는 정주학에 매진한 선비였지만 노장학이나 공사상뿐 아니라 불교의 교리에도 깊이 천착했던 유학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박학다식하여 그가 읽었던 장서만도 1,600권이나 되었다고 하고 그가 읽은 방대한 양의 책들을 분류하여 <홍주독서록(洪氏讀書錄)>이라 명명했다고 하니 이는 그의 학문적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홍주독서록(洪氏讀書錄)>의 서문에 “내가 일찍이 읽어 감명을 받은 것과 대개 읽고 싶었으나 읽지 못한 책을 골라 그 제목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개요를 기록했다”고 하였고, 동생 현중(憲中)이 자신처럼 책을 읽어 요령을 얻지 못할까 염려해서 이 책을 지었다는 명분도 뚜렷이 하였다.

한편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월출산과 대둔사를 방문했을 때 지은 시문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그가 월출산 산정(山頂)의 상견성암(上見性庵)에 올라 회작(會作)한 시에는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출은 부처의 마음이고(月出爲印心)
높은 산봉우리는 곧 경성이라(峯高名見性)
어찌하여 경성인가(如何是見性)
몸이 무상등에 있어서라네(身在無上等)
일체의 모든 고해의 상이(一切諸苦相)
울타리를 잡고 다시 돌다리로 이어졌네(攀蘿復緣)
점차 발꿈치를 가두지 않다면(稍不牢脚)
천 길의 합점으로 실추되리라(失墮千尋脚)
이미 만들어진 후에는(及其既造後)
절로 차별 없는 경지를 이루네(亦自無別境)

만약 차별의 경지를 구한다면(若更求別境)
이는 대승의 경지라 말할 수가 없네(是不名上乘)
즐겁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無喜故無怖)
동(動)을 잊었기에 정(靜) 또한 잊었네(忘動亦忘靜)
구름이 걸친 숲은 보리가 아니며(雲林非菩提)
바다에 뜬 달도 밝은 거울이 아니라(海月非明鏡)
코끼리 털에 파리를 붙자로 티니(象毛纏拂子)
유리구슬이 이마를 꿰네(琉璃珠貫頂)
나의 법안으로 보니(我以法眼觀)
모든 경계가 공하네(空諸所有景)
어찌 그릇된 생각으로 꾸미리오(何處妄身)
금박이 서로 비치네(金碧交輝映)
함께 해탈하는 것만 못하니(不如俱解脫)
다만 맑고 고요한 물에 있을 뿐이라(唯存水淸淨)

연천이 앞에 인용한 시를 지은 것은 두륜산과 송광사를 유람할 무렵인 듯하다. 당시 그는 이곳을 유람한 후 ‘두륜산유기(頭輪遊記)’와 ‘송광유기(松廣遊記)’를 짓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유람시기의 선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암의 월출산에 올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월출산 산정에서 지은 시에는 “월출산 산정에는 암자가 있는데 이름이 상견성이다. 무심이 게어(偶語)를 짓는다(月出山頂有庵 名曰上見性)라”고 하였으니 상견성암의 승려들과 선을 주제로 담소했으리라 짐작된다.

정주학 유학자로 노장에도 관심

대흥사 응신·지현 등과 깊이 교류

장서 1600권 소장... 불교에 박식

송광사·도갑사 등 유람한 시 남겨

戲作僞語”라고 하였으니 상견성암의 승려들과 선을 주제로 담소했으리라 짐작된다.

이에 앞서 그는 ‘밤에 월출산 도갑사에서 묵으며(夜宿月出山道岬寺)’라는 시를 지었는데 이 시에 “관 등 하나가 향하를 비치니(夜宿月出山道岬寺) 산사의 차가운 종은 소리 내어 답 하네(山寺寒鐘敲鼓 聲)라”고 하였다. 따라서 앞에 인용한 시는 그가 도갑사에 묵은 후 월출산을 올랐거나 아니면 월출산에 오른 후 도갑사에서 하루 밤을 머물렀을 것이다.

아무튼 그가 ‘심인(心印)’이나 ‘견성(見性)’, ‘법안(法眼)’, ‘보리’ 같은 불교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점이다. 특히 초구(初句)에 월출(月出)은 그가 오른 산 이름으로 해인(海印), 심인(心印)에 배대했다는 점에서 그의 불교에 대한 이해는 그 심연이 깊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그의 박학다식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이미 1600여 권을 넘는 방대한 독서량을 보였던 그에게 해박한 불교의 이해는 조선 후기 불교를 만난 유학자들의 공통된 정서이기도 하다.

한편 그가 도갑사를 떠날 때에는 비가 내렸다. 이 람에도 불구하고 도갑사를 떠나야만 했던 전후 사정이 알 수는 없지만 “앞길엔 기이한 볼거리가 있으니(前行有奇觀)/내 수레 더 머물 수가 없네(未可淹吾羈)”라고 말한 연천의 여유는 조선 선비의 기품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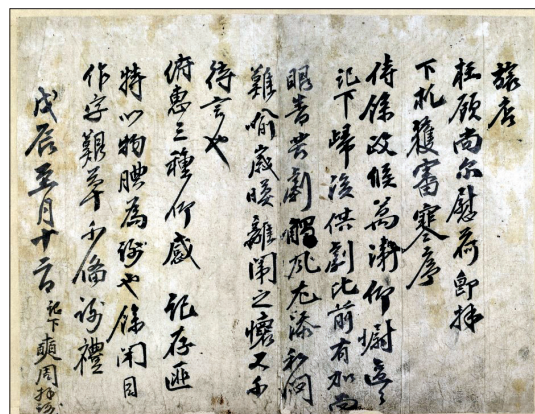
그가 도갑사를 출발하며 산승 견우에게 답한(問雨出道岬 答山僧見留者)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보 제144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구정봉의 서북쪽 암벽을 깊게 파서 불상이 들어앉을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높이 8.6m의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 홍석주는 월출산 등을 유람하며 불교에 관한 시 몇 수를 남겼다.



불교에 심취했던 홍석주는 정주학을 기초한 유학자였다. 그의 저술 <학해(학전 원축)>와 친필 글씨. (사진 오른쪽,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목은 구름이 산으로 돌아가지 않아도(宿雲不歸山)
맑은 샘물이 끝없이 흐른다네(石泉澄餘澗)
산승이 불나물을 잘라다가(山僧剪春蔬)
비바람 부는 밤, 나를 위로하였네(慰我風雨夜)
아득한 진흙길, 실로 건너기 어려운데(前途泥難涉)
후한 뜻에 거둬하여 감사하네(厚意重堪謝)
앞길엔 기이한 볼거리가 있어서(前行有奇觀)
내 수레 더 머물 수가 없네(未可淹吾羈)

도갑사 산승은 불나물을 잘라다가 정갈한 공양을 준비했을 터이다. 비바람 몰아치는 저녁, 따뜻한 소찬은 속객(俗客)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공양물이다. 더구나 산승의 진실한 성의는 연천의 심신을 흡족하게 했으리라. 그러기에 그는 “후한 뜻에 거둬하여 감사하네(厚意重堪謝)”라고 말한 것이다. 시의 묘미는 이처럼 함축적이다. 따라서 그는 사람의 마음을 거쳐 드러나는 것이 시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런 그의 견해는 ‘답김평중논문서(金平仲論文書)’에 “대저 시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氣)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말하는가. 정에서 나온다. 기는 하늘에서 나오고 정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하늘과 사람의 오묘한 느낌 중에 (시) 이것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없다(夫詩奚出乎 出于氣 奚發乎 發于情 氣出於天 情出於人 天之妙感 莫是先焉)”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에서 천(天)은 이(理)나 도(道)를 말한다.

“기는 하늘에서 나오는 것”라 하였다. 결국 시란

도에서 흘러나와 사람의 마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가 “마음 밖에 문이 없고 도 밖에 마음이 없다(心外無文 道外無心)”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의 시작론(詩作論)이기도 하다.

한편 불교의 공(空)에 대한 뚜렷한 그의 인식은 대둔사의 응신과 지현 두 스님에게 써준 시에 나타난다. 당시 그는 대둔사의 두 스님과 선을 담론했을 터다. 그러기에 마침 도갑사에서 지은 게어(偶語)를 고쳐 두 수를 지었다고 했고, 또 이별할 때에 네 게어(偶語)를 지어 두 스님에게 주었다(留宿大菴寺 與戒身指軒兩老宿談禪 遂就道岬所作偶語 彙括成兩首 又別作四偈以贈之)고 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공에 대한 인식은 대둔사 승려 응신과 지현 스님과 담론에서 그 규모를 드러낸 셈이다. 두 스님에게 지어 준 시 중에 두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밥을 다 먹고 나서(飯食旣畢已)
발을 닦은 후 티끌을 없애라(撲鉢念彌陀)
빈산엔 사람의 자취마저 끊어졌는데(空山不見人)
물 흐르고 무심히 꽃이 피었네(流水興開花)
거울에도 보리수는 푸르고(冬靑菩提樹)
바다에 뜬 달, 명경대모다(海月明鏡臺)
본래 일물도 없는 것인데(本自無一物)
어찌 먼지를 닦으려 애쓰리오(何勞拭塵埃)
물을 색이라 말한다면(若道水是色)
잡아도 자취가 없고(執之不見跡)
만약 물을 공하다 말한다면(若道水是空)
보면 곧 색이라(視之即有色)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非色亦非空)
어찌 분별이 일어날까(何更起別見)
서강의 강물을 다 마셨으리니(吸盡西江水)
그대는 한 바퀴 돌러주시길(請君下一轉)

연천의 불교의 정곡을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본래 일물도 없는 것인데(本自無一物)/어찌 먼지를 닦으려 애쓰리오(何勞拭塵埃)”라고 말한 것이다. 더구나 그의 시에는 해운선사의 계승인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에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서 티끌이 일어나리오(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따라서 이는 연천의 불교에 대한 박학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인 셈이다. 실로 연천은 불교의 정수를 익히 알고 있었던 유학자라 하겠다. 그의 초명은 호기이며 자는 성백(成伯), 호는 연천(淵泉)이다. 1795년 문과에 급제한 후 직장, 검열 등을 역임하는 등 그의 환로(宦路)는 비교적 순탄하여 이조 판서, 양관대제학, 좌의정에 오르기도 하였다. 세손(世孫)의 사부(師傅)로, 현종과 인연을 맺은 후 세도정치가 참여했다. 1836년 남웅증의 모반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削奪官職) 되었다가 1839년에 다시 복관되어 영주추부사에 올랐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연천집(淵泉集)>, <학해(學海)>, <영가사(永嘉三怡集)>, <동사세가(東史世家)>, <학강산필(鶴岡散筆)>, <상서보전(尙書補傳)> 등이 있다.



박동준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장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App Store (아이폰용)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절로 문의전화 1644 - 9108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쫄**”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공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병곡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로 61(영화동)